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본지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이종수 편집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지난해 11월 13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열린 신년 특별좌담회 장면

◆이종수 : 본지 신년호를 위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특별좌담회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세기 마지막 시점이 되는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참으로 놀랄만한데 오늘날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태길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참석자

- | | |
|-----------------------------|----------------------|
| • 姜信龜
〈문화일보 논설위원 겸 출판국장〉 | • 金泰吉
〈서울대 명예교수〉 |
| • 朴益洙
〈한국과학저술인협회 명예회장〉 | • 張會翼
〈서울대 자연대교수〉 |
| • 黃傭周
〈중앙대 건설대학원교수〉 | 가나다순 |

● 사회/정리

- 李鍾秀 〈기술평론가/본지 편집위원〉

- ◆ 때 ... 1996년 11월 13일 오후 2시
- ◆ 곳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3명의 마법사」童話 실감

◆김태길 : 좀 엉뚱한 것 같지만 65년 전쯤 중학교 하급학년 교과서에서 배운 동화가 생각납니다. 3명의 마법(술)사가 아프리카 어떤 지방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가 길가에 흩어져 있는 해골과 여러 개의 뼈 앞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한 마법사가 뼈를 맞추고 해골을 붙이고 하더니 표범의 골격을 만들어 낸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른 마법사가 거기에 흙을 바르고 나뭇잎을 붙이고 하더니 표범 박제를 만들 어냈습니다. 마지막 마법사는 그 표범 박제를 향해 입김을 훑 불어서 생명을 넣어 주었습니다. 살아난 표범은 으르렁거리며 3명의 마법사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었습니다.

동화의 원작자인 서양사람이 오늘의 문명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의 인류의 파멸과 지구 환경의 파괴, 위협까지를 예견하고 그런 동화를 지었는지 어떤



▲ 강신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3명의 마법사는 과학기술자를 포함한 인류이고 표범은 과학기술 내지는 그 성과가 아닌 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종수 : 참 재미있는 그리고 함축성 깊은 동화군요. 오늘날 핵보유국의 핵물질만으로도 인류를 몇번씩이나 전멸시킬 수 있고 과학기술로 만들어지는 온갖 물질은 수질 및 대기오염 등의 공해를 일으킴으로써 지구의 자연생태계를 자칫 재생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할 지경에까지 왔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쯤되면 국가나 기업의 논리에 의해 본의 아니게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과학자의 책임을 거론하

지 않을 수 없겠군요.

◆박익수 : 그렇죠. 과학기술자는 본의든 아니든 사회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박사같은 사람도 아무리 나치 독일의 원폭개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고는 해도 미국의 원폭개발의 발단을 이룬 역할을 한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혹은 책임을 느끼고 영국의 러셀 같은 사람들과 원폭 사용에 반대하는 퍼그보쉬회의에 참가하기도 했고 아인슈타인-러셀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을 통절히 느낀 나머지 그러한 평화운동에 참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는 차원이 낮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준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사회적 책임을 느꼈는지는 걸로 나타난 운동같은 것이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장희익 :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이상할 정도로 크게 발달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해 옹기 못한 작용을 하는 수가 많고 인류를 위해 연구개발한다는 것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강신구 : 유전자조작은 최첨단 과학기술로써 무슨 무서운 결과를 인류에게 가져다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유전자 바뀐치기 등으로 무서운 성질의 박테리아를 만들었다가 그것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경우라도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 뻔합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국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심지어 주부들도 다

베이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이 없으니 과학기술자의 사회책임론 같은 것이 나올 여지가 없지요.

잘못맨 “내 탓이요”나서야

◆황용주 : 모두 산업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 김태길

하는 입장에서 오늘의 우리 도시를 보면 숨도 못쉬고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왜 이 지경까지 악화됐느냐는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엔 어썩든 본의가 아니라도 과학기술자의 책임도 크게 있다고 보이는데 누구 하나 내 탓이요 하고 자기 책임을 강조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윤리의 한가닥으로 강력하게 내세워서 과학기술자는 물론 그가 속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대학 등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합니다.

◆이종수 : 세상이나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되는 데는 동양의 유교 도덕의

기본이 되는 삼강(군신 사이의 강, 부자 사이의 강, 부부 사이의 강, 강은 지켜야 할 항목 또는 길) 오류(또는 상, 인, 의, 예, 진, 신)같은 것이 큰 몫을 다 해왔는데 요즘 세상은 삼강오륜은 저리 가라고 부정, 불의, 부패가 만연되어 그러지 않아도 가장 청렴한 계층인 과학기술인 사회에다 대고 삼강오륜을 지키라고 말하기는 좀 어색한 구석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다는 루이 파스퇴르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도 과학자에는 조국이 있다”고 일찍이 갈파한 일이 있습니다. 썩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자들은 삼강오륜같은 윤리적인 강목을 의지삼는 것이 좋은게 아닐까요.

◆김태길 : 오늘에 와서 옛날의 삼강오륜을 절대로 옳은 것이니 무조건 지키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부모에 효도하고 부부간 화목하는 것 등은 모든 사람의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서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여기엔 과학기술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겠지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은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서 삼강오륜적인 덕목을 지키는 것이 업무의 성과를 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황용주 : 삼강오륜이란 고식적인 말 같지만 요는 사람이 지켜나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공무원, 돈먹는 정치가들이 판을 치고 일반서민층 사이에서도 살인, 폭력, 불륜이 만연돼 모두 도덕불감증에 걸린 양상을 보여주는 시대가 됐으므로 무엇보다 사람이 돼야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자들도 물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자가 직접 사고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불의, 부정사건 같은 것을 저지르는 주위사람을 과감하게 막지 못하는 것도 사람 됨됨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되면 자기 직무에 자신과 긍지도 갖게 되지요.

◆이종수 : 박익수선생님은 미국에서 출판된 「배신의 과학자」를 번역해



▲ 박익수

서 내놓으셨지요.

「배신의 과학자」 생각해 보자

◆박익수 : 네, 그렇습니다. 그 책을 번역하면서 놀란 것은 성역시했던 미국의 과학계에서 별의별 해괴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따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교가 실험데이터를 날조하는 것은 항다반사 같은 일이고 동료가 동료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함정을 파서 사건화시키는 일도 빈번합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상사에 대해 배신하는 경우가 수도룩하는데 그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데에서 미국 과학

계의 병폐가 그만큼 깊고 넓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필귀정이랄까, 배신자들의 행적이 그 저서를 쓴 기자들에 의해 세상에 폭로됐으니 그들 배신자의 신세도 뻘한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과학기술계서도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캐내지 않아서 노출되지 않는다 뿐이지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데이터 조작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필귀정 들통이 날지 모를 그런 진리에의 배신행위, 사회에의 배신행위 같은 일을 스스로의 양심문제로 자각해서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信)은 오류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김태길 : 사실 혼탁사회를 무사편안히 살아가려면 행복에 관한 가치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 재물을 쫓는 것을 제일로 삼는 것도 행복에 대한 가치관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재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대통령은 1명이고 재벌은 얼마 안됩니다. 차라리 건강하게 사는 것을 행복의 가치관으로 삼는다면 섭생을 하고 운동을 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은 평온한 사회가 되게 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인격을 닦는 것을 사회적 가치관으로 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좌담의 주제에 맞춘다면 과학기술자는 진리의 탐구, 창조적인 기술개발을 최상으로 여기는 가치관 아래 자기직무에 충실하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황용주 : 돈 많이 벌겠다는 사람을 탓할 것은 없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않고 아침하지 않고 깨끗하게 돈을 번다면 뇌두어도 됩니다.

◆김태길 :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돈을 번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돈보다 인격이 우위라는 가치관이 확립된 사회에서만 깨끗하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주 : 아니죠. 가치관 확립이 중요한 것은 부인 못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미국처럼 세무행정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미국 세무행



▲ 이종수

정의 엄정성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닉슨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워터게이트사건 때문이라기보다 랜드연구소와 관계된 저서(2권)의 인세를 탈세한 것이 진짜 이유라지 않습니다. 엄정한 세금행정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깨끗하게 돈을 벌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고위직공무원이 1백달러짜리 선물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크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라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가차없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가치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든지 가닥을

잡아야겠습니다. 엄한 법으로든지 강한 윤리관을 갖게끔 해서든지 가닥을 잡아서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안하고 공금을 가로채 나눠먹지도 않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웃음).

◆박익수 : 공무원이 거짓말 않는 사회가 있을까요(웃음).

◆강신구 : 제가 보기엔 우리 과학기술계는 전체적으로 보아 맑은 사회가 아닌가 하는데요.

◆박익수 : 맑아 보이긴 하나 과학기술계 내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정부방침이 옳건 그르건 순종하는 위원은 오래 남아 혜택도 입지만 조금만 빠지는 옳은 소리를 했다간 오래 남질 못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 일이 얼마나 제대로 처리되는 지는 의심스러운 일이지요.

◆이종수 :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천재적인 과학자나 독창적인 기술자들 가운데에는 성격적으로 기인, 피짜가 많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하려면 우리 과학기술계도 그런 과학기술자들이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박사 같은 사람도 딸을 고아원에 보내고 돌보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장희익 : 같은 대과학자라도 뉴턴은 냉혹한 성격때문에 존경을 못 받았지만 아인슈타인박사는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해서 크게 존경을 받았죠. 고아원에 보냈다는 딸도 두번째 부인의 재혼 전 아이라고 합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 기록을 면밀하게 뒤져 보았지만 고아원에 보내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기인, 피짜도 재능을 키울 수 있고 평

범한 과학기술자들이라도 협력을 하면서 연구개발하는 사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종수 : 작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고 우리 과학기술자 앞에도 해결을 요하는 많은 과제가 쌓이게 됐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출석않는 자리이긴 하지만 출연연구기관 노조의 시위, 파업 등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길선생님께서서는 정부 출연연구기



▲ 장희익

관의 노조가 시위하고 파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태길 : 들은 바 없습니다.

◆이종수 : 네, 그렇습니까. 일반 사회에서 그러한 연구기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때로는 대우문제 같은 것을 내걸고 시위도 하고 파업도 하는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며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태길 : 이와 비슷한 것이 교원노조와 언론노조 그리고 그 밖에 화이트컬러의 노조행위일 것입니다. 과학기술자니까 노조운동을 하면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학기

술자들의 노조 뿐만 아니라 모든 노조의 운동이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노조운동이 합리적이 아니고 항상 감정적으로 대립해서 일을 복잡하게 하는게 문제입니다. 특히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 과학기술자들이니까 노조운동도 합리적으로 해서 다른 노조사람들이 본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종수 : 좋은 말씀입니다. 박익수선생님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파업이니 하는데 대해서 느끼신 일이 있으십니까?

◆박익수 : 많죠(웃음). 과학기술자들은 직장에서 최상의 성과를 올려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지만 일반 기업연구소의 과학기술자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간에는 구별이 있었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에게는 연구원으로 준수해야 할 까다로운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직이 있는 연구원은 노조운동을 할 수 없고 보직이 없는 연구원은 노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기술자의 경우, 대학을 나와 약 10년동안 즉 보직이 없는 시기에 가장 연구성과가 오를 때가 아니겠습니까. 연구의 자율화가 저해된다든가 연구성과가 악용되는 경우, 그것을 내세우면 본인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되기도 하니까 몇몇한 명분의 시위나 파업이라해서 어느 정도 관대하게 봐줄 수 있겠으나 사소한 이기적인 내용이 문제된 노조운동일 경우에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노조운동을 일어나게

만든 측의 책임도 작지는 않겠습니다.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중요

◆장희익 : 과학기술자의 노동운동이 일반 노동자의 노동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자로서 자기 일에 열심이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보통일테고 더군다나 성과를 올리려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니 노동운동에 열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과



▲ 황용주

과학기술자를 어용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직장에서 분명히 잘못된게 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것을 똑바로 세간에 알리는 것이 그리하여 시정토록 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보아 과학기술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직장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면 오히려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는 원래 약한 사람들인데다가 직장까지 잃으면 물에서 떠난 물고기 신세니 옳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옳은 소리를 해서 올바르게 받아들여지게 하려는 과학기술자가 있게 마련

입니다. 직업인이니까 대우문제도 내걸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나 김태길선생님 말씀대로 과학기술자답게 합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긍정하는 방향의 노동운동이 됐으면 합니다.

◆강신구 : 정부 출연연구기관 노동조합문제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짧아서 화이트컬러의 노동운동이 현재 왕성한 것이지 결국은 스스로 약화돼서 없어지는 것이 외국에서 보아 온 결말입니다.

그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생들이 법대와 상경대로 몰리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문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산부나 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에 이공계 출신이 오직에 앉아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야할 터에 통산부 같은 곳에는 이공계 출신 국장이 1명도 없고 과기처마저 이와 비슷하다는 우려스러운 현상은 과학기술입국을 위해 시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논문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고 우리나라 특허발생수가 일본의 8분의 1밖에 안된다는 사실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이종수 : 강국장님,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도록 하는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신구 : 그렇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언론 내부에서나 사회안에서는 그전처럼 과학기술 일변도의 기사나 연구개발, 성공뉴스 같은 것만으로는 설득력을 발휘하질 못합니다. 과학의

사회화라고 할까요. 과학기술을 사회 시스템 발전에 맞추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문화도 시야에 넣은 기사가 아니면 별로 환영을 못 받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언론인들의 어려움과 보람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나 할까요. 언론도 과학의 사회화를 위해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등을 촉구하겠지만 과충도 과학의 사회화운동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종수 : 미국의 벨전화연구소에서 처음 트랜지스터를 발명하여 특허를 얻었을 때는 그 로열티만 갖고도 5천명 연구소원이 50년은 놀고도 먹을 수 있다고 했지요. 출연연구기관의 노동운동을 마뜩찮게 보는 시각은 연구기관에 대한 큰 기대감에서 우려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황용주 : 분업을 전제로 협업이 이뤄지는 것이 산업사회의 특징인데 거기엔 신용이라는 것이 기간을 이뤄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사회는 너무 빨리 성장하다보니 어딘가에서 삐뚤어져서 도덕불감증이 만연하는 한심한 양상을 나타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조합은 원래 단체협약권을 장악하기 위해 시간제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출연연구기관조차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은 직업윤리, 사회적 윤리 면에서 반성을 촉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인정신에 투철해야 할 연구기관 과학기술자들은 그 입장에서 생산적인 성과에 주력하는 것이 직업윤리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부에서도 근무했고 정부 출연기관에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만 연구기관의 경우 입소할 때는 지침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일탈한 행위는 계약위반인 셈이죠. 그러나 정부가 돈을 냈으니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노조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쌍방이 연구소의 사회적 책임, 연구원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해야겠죠.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여의도분들의 새로운 인식도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내세우고 싶습니다. 연구개발자들은 연구시설이 좋고 연구분위기가 안정되면 연구개발을 하지말라고 해도 제자리를 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종수 : 과충에서는 지난 80년 6개조로 이뤄진 과학기술인의 신조를 만들어 행사 때마다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과학기술자들이 잘 지켜주면 과학기술자 사회는 윤리적으로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김태길 : 이것만이라도 하지만 모두 좋은 말입니다. 그 조항들을 잘 실천하면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도 잘 이행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과충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들이 넓은 시야에서 그들 앞에 쌓이는 자원, 에너지문제 등 갖가지 난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과학기술 전체를 보고 과충이 마스터플랜을 갖고 과학기술계 전체를 통괄하는 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인 신조」에 환경 추가해야

◆장희익 : 과학기술인의 신조가 시대에 약간 뒤진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습니다(웃음). 과학기술의 창달과 진흥이 국가와 인류를 위해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럼으

로써 지구의 자연계 생태를 파괴하여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갈지 모를 환경 문제가 누락된 것이 단적으로 시대에 뒤진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시대에 맞도록 산 신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

◆황용주 : 동감입니다. 한마디로 진부합니다. 김태길교수님께서 새로운 윤리관을 담아 철학적으로 재정립하셔야겠습니다(웃음). 아니면 지금 그대로 로라도 널리 과학기술자의 머리 속에 넣어 실천할 수 있게끔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잘 만들어 낼 것입니다.

◆박익수 : 시간도 다 된 듯하니 중요한 것 몇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대학의 과학기술교육 커리큘럼에 역사과목이 없는 것은 큰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과학사든 기술사든 역사과목은 과학기술자의 안목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적 책임을 자각시키는데도 유용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과학기술관련 공무원들은 정책수행, 산하기관 보조업무 등에서 청렴하고 봉사적이며 성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기에 앞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의 시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과학기술계의 현황이나 활동 상황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과학기술언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을 비판, 비평하는 평론활동도 활성화돼야 하겠습니다. 비판없이 사회, 경제민주화의 진전이 있을 수 없고 비판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 : 오랜시간 유익하고 뜻깊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㉞